

농촌 삶의 질 향상과 여성의 역할

서 종 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겸
농림부장관 자문관

1. 오늘의 농촌경제와 삶의 질

인간의 삶의 질을 단순한 지표로 제시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 만큼 인간의 가치기준은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삶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 왔으나 아직까지 완전한 지표는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

사회현상의 계량화에 선두의 위치에 있는 경제학에서도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효용(utility)이나 복지(welfare)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추상적이다. 객관적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의 효용이나 복지수준의 결정은 소득수준(정확하게는 소비수준)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다는 경제학 이론은 매우 높은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객관적 지표인 소득도 개인의 주관적인 효용함수에 따라 삶의 질은 달리 평가될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결국 개인의 가치체계에 따라 삶의

질은 평가된다 따라서 객관적 지표인 소득과 주관적 지표인 가치체계는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소득측면에서 볼 때 오늘의 농촌주민 삶의 질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있으며, IMF로 인하여 더욱 열악한 상태로 가고 있다.

최근 원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가 1.5배이상 상승함으로써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화학비료, 농약, 배합사료, 농용비닐등 농용자재 값이 IMF이전에 비하여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이상 상승하여 농산물의 생산비와 경영비가 크게 올랐다. 농산물의 소비는 IMF로 인한 소비자들의 실질소득 감소와 150만명을 상회하는 실업자로 인하여 1980년대말 수준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즉, 총체적인 농산물의 수요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생산은 어떠한가? 지난 7년간의 지속적인 농업투자로 인하여 농업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농산물 수급은 불균형 상태를 초래하여 가격의 하락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7년간의 막대한 농업투자를 위하여 농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이 도래함으로써 대부분의 농가는 자금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영자체가 파산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현재와 같은 경제상태가 적어도 4-5년 지속된다고 전망할 때 농가소득의 감소는 물론이고 채무상환이 어려워 농업경영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와

같은 외환위기를 이미 경험했던 멕시코나 서유럽국가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다. 농가소득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는 농촌 삶의 질이 과거에 비하여 열악해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늘과 같은 결과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2. 지나친 효율성 추구에 대한 반성

농촌경제가 오늘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농업외적인 요인의 작용도 크지만 내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UR이후 지난 7년간 우리는 지나치게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치중하다보니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장규모의 확대에 주력하였다. 그래서 농지면적의 확대, 시설의 규모화, 대형 농기계의 구입 등 농가는 하드웨어적인 농지나 시설 투자에 주력하였고 이는 부채의 증가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투자가 단순한 생산비절감에 치중함으로써 지역과 개인이 갖는 다양성 보다는 획일성이 우선되었다. 이는 투융자제도가 갖는 경직성에도 그 원인이 있다. 그 결과 정책적으로 지원받은 소수 농가는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책에서 소외된 대부분의 농가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는 상태이다.

지나친 정부보조는 농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의타심만 조장함으로써 과거 새마을운동으로 형성된 자립적이고 자조적인

농업인의 정신을 빼앗아 버렸다. 대규모 농업 투자는 경영 규모의 확대와 함께 농가의 자금 운용규모 그리고 소비 수준의 확대까지 연결되었다. 그 결과 농촌지역에 대한 투융자 지원확대는 농가의 소비성향을 높임으로써 농촌에서는 『절약의 미덕』 보다는 『소비의 미덕』이 일반화되었다.

한편, 개별농가의 효율중심의 농업경영방식은 공동적인 이익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고, 장기적인 이익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에 치중하는 지나친 개인주의적 사회로 변모시켰다. 그 결과 환경보전과 같은 공동적가치 추구는 등한히 하게 되어 농촌의 자연환경은 과거보다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규모화와 획일성에 의한 다양성의 상실, 경제제일주의로 인한 환경과 문화의 상실은 이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농촌 개발 전략이 필요하며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농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의 선택

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업생산의 효율성 증대는 규모 경제의 유리성(economy of size)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드웨어적인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어 농가부채의 증가, 환경보전의 경시 그리고 지역이나 농가가 갖는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 반면, 소비자 기호의 다양성 그리고 생산여건의 상이성을 바탕으로 한 농업생산 방식은 차별성의 원리와 범위의 경제 유리성(economy of scope)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여기에는 하드웨어적인 투자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투자가 수반되어 대규모 물적투자보다는 품질 향상이나 생산조직의 효율적 결합과 같은 기술적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농업이 갖는 규모경제의 유리성의 한계를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획일화적인 규모화에 의한 농업생산성 제고는 재고 되어야 한다. 반면, 다양한 소비자기호를 전제로한 농산물의 차별화 확대나 다품목 소량 생산을 목표로 한 농산물 생산의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추구는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앞으로 농가는 단순한 생산보다는 가공과 판매까지 담당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으며, 이는 품질의 차별화나 이미지의 차별화를 통하여 가능하다. 획일적인 농산물의 판매보다는 지역과 농가가 갖는 다양한 농업여건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농산물의 높은 값으로 도시 소비자들에게 팔리고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의미한다.

농업자원의 이용측면에서도 범위의 경제가 갖는 유리성의 추구가 필요하다. 그 동안전문화·규모화과정에서 소홀히 취급되어온 농촌의 유희자원이 농가의 경영조직 재편이나 마을이나 지역단위의 농업구조의 재편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농가내에서 축산과 경종 작물의 결합은 화학비료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개별 농가내에서 그와 같은 결합이 어렵다면 마을 단위에서 추구할 수 있다. 마을의 산림자원과 축산, 경종농업의 결합, 나아가서 가공까지 결합하는 자원의 리사이클링 체제가 갖추어 진다면 농촌·농업의 환경개선은 물론이고 분업을 통한 전문화의 잇점과 범위의 경제의 잇점 그리고 차별화의 잇점도 살릴 수 있다.

사회의 발전과 함께 사람들의 가치체계가 『경제제일적 가치』에서 『환경적가치』, 나아가서 『개성과 문화에 바탕을 둔 다양성의 가치』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성, 다양성에 바탕을 둔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이나 다품목 소량 생산체제의 농업·농촌이 갖는 다면적 기능을 살리는 농촌개발방식이다.

농촌이 갖는 볼래의 기능인 다양한 문화전통, 오염되지 않는 자연환경, 공동체의식 등은 앞으로 우리가 보존하고 발전시킬 가치있는 농업·농촌만이 갖는 자원이며 이는 도시에서는 누릴수 없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원이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도시모방적 생활방식 보다는 농촌다운 생활방식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 스스로 자기가 살고 있는 농촌이나, 자기직업인 농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4. 앞으로의 농촌개발 전략과 농촌여성의 역할

농촌사회에서 여성은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이나 농촌개발에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농촌사회가 갖는 보수성으로 인하여 농가내부에서나 농촌사회에서의 주요한 의사 결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하드웨어적 개발 보다는 소프트웨어적 개발이 중심이 될 때 농촌여성의 역할은 보다 중요시 되며 이는 새로운 가치창조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의 사회가 환경성, 다양성, 전통문화의 보존과 지역농업·농촌·농산물의 차별성에 대하여 큰 가치를 부여한다고 할 때 농업 생산활동은 물론이고 소비활동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소비자들이 안전성이 보장된 고품질 농산물에 대하여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에 부응하여 소비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섬세한 기술농업은 하이타치산업으로서 농촌 여성의 몫이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차별성은 품질의 차별성과 판매 활동과정에 있어서의 서비스와 브랜드의 차별성을 통하여 구현되며, 여기에는 여성이 갖는 친절함과 예술적 재능이 유감없이 발휘 될 수 있다.

한편, 환경적가치, 전통문화적가치, 다양성의 가치는 생산활동 못지 않게 소비 활동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가계소비지출, 주택개량, 마을개발, 마을전통의 유지와 발전, 자녀교육등은 농가의 소비활동내지는 차세대를 위한 투자활동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소비활동이나 교육투자로 21세기의 새로운 가치에 초점을 맞출 경우 농촌 여성의 역할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향에서 찾을 수 있다.

농촌 삶의 질이 농가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소비활동은 과거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합리적인 소비생활이란 단순한 절약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그동안 농촌에서는 도시 모방적인 문화의 만연으로 과소비 풍조가

만연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소비적 풍조는 여성들이 앞장서서 제거해야 한다. 특히, 농가부채의 증가가 관혼상제나 교체비 등의 지출 증가에도 기인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낭비적 지출은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주거환경의 개량이나 마을개발에 있어서도 현대적인 편리성은 추구하되 우리의 전통문화와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의 물적, 인적자원의 활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며, 앞으로 농촌지역이 갖는 다면적기능을 제고시켜 도시인에게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무조건적인 서구나 도시 모방적인 주거환경의 개선이 농가에 부채만 안겨주면서 농촌이 갖는 문화의 전통성을 상실하게 만든 잘못된 과거는 바꾸어야 한다.

농촌만이 갖는 고유한 문화·전통의 발전·유지는 농촌의 가치는 높여주는 요소이다. 효의 사상이나 공동체의식은 선진 국가에서조차 높이 평가하는 사회적가치이다. 이와 같은 문화와 전통의 유지에는 자녀교육에서 하나의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다. 농촌 여성들이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농촌의 전통과 문화의 유산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미래의 산업이 문화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다.

5. 맺음말

오늘의 어려운 농촌경제를 감안할 때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과거와는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해외 자원 의존형이 지나친 효율성 위주의 농촌개발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물적중심의 하드웨어적 농촌개발전략은 농가 경영의 불안정성 증대는 물론이고, 환경 파괴적이며, 자원낭비적이고 또한 전통과 문화의 상실의 결과를 가져다준 측면이 많다.

앞으로의 농촌개발은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적·문화적 중심의 소프트웨어적이어야 하며, 농촌여성의 역할은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다양성, 환경성, 전통과 문화는 21세기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다. 따라서 농업 생산활동은 물론이고 농가의 소비지출, 농촌주거환경개선등 다양한 소비활동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촌여성들이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농촌이 갖는 다면적 기능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농촌여성을 위한 연구나 교육·지도의 방향이 이 부분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 것이 필요한 싯점이다.